

성소수자의 복식을 통한 젠더 정체성 표현

김 규 연 ·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장*

요 약

현대 패션은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발적인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규범으로부터 영향받으며 특히 복식과 젠더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 문화기술지를 활용하여 성소수자의 일상적 상황에서의 복식 활용 특성에 주목하였다. 일상적 상황에서 복식을 활용할 때 젠더화된 복식의 규범과 문화 내적인 규범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규범이 작용하는 양상을 확인하며 이에 내재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른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성소수자는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대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복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의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대한 태도는 순응, 개성과 타협, 비순응, 이탈로 구분되었으며, 대응 태도에 따라서도 복식 스타일 표현 양상을 개성 추구형, 신체 관리형, 관습적 젠더 모방형,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으로 나뉘었다. 비교적 공통적으로, 성소수자는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바탕으로 복식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의 젠더를 표현한다. 일상적 상황에서 다양한 젠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복식을 활용하며, 성소수자의 복식을 통한 젠더 수행은 젠더화된 복식의 규범 가운데 틈을 만들고 확장하며 새로운 규범의 등장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한국 성소수자의 일상적인 복식 스타일 활용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패션의 가능성을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복식을 활용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민에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패션 제품의 기획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성소수자 범주와 세대 내에서 보여지는 세분된 특징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벽장’에 속한 참여자를 다수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주제어 : 젠더 정체성, 성소수자, 복식 규범, 복식 스타일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cha@snu.ac.kr

접수일: 2020년 7월 23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9월 18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29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복식과 관련한 규범은 사회에 내재하며 개인의 패션 표현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자신의 정체성 중 한 부분이자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성(sex, 性)과 젠더(gender)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젠더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으로, 생물학적 성과 달리 고정되지 않으며 의미가 변화한다. 과거 남성성과 여성성을 의미하던 젠더의 의미는 확장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양성의 경계를 구분 짓고 생물학적 성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유니섹스 모드를 넘은 젠더리스(genderless) 패션이 현대 패션의 한 흐름을 차지하며, 이를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패션 제품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복식의 역할에 주목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gender minority)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복식 활용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성소수자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담론 초기에 성소수자는 비가시적이며 낙인찍힌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대중매체에서도 독특하거나 이상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형성되었으며, 미디어에서도 성소수자를 중심 혹은 주변 소재로 다루는 경향이 커졌다.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이나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

게 전개되고 있으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부터 존재하였으나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던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정체화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 담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더욱 다양해진 성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공존, 그리고 새로운 젠더 정체성이 등장할 수 있는 암시적인 가능성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젠더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복식 스타일 활용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복식을 통해 전달되는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이후 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담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복식에 관련한 일반적 규범과 젠더 규범, 성소수자의 복식 문화를 사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성소수자의 일상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활용 양상을 관습적 젠더 규범과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그 특성을 규명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구성적 젠더의 개념을 주장하는 후기구조주의적 담론을 고찰하며, 복식과 관련한 일반적 규범과 젠더 규범, 성소수자의 복식문화에 관한 사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로는 부분적 문화기술지(focused ethnography)를 병행하여 성소수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각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성소수자의 복식의 활용 방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질적 연구는 통제된 조건에서 측정과 통계를 기반으로 현상의 단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접근 방식으로, 한정된 연구참여자와 참여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험에 접근함으로써 현상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1998/2005).

부분적 문화기술지는 전통적 문화기술지에서 파생된 연구 방법으로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문화 체계 내 차이점에 주목하여, 특정 사회 집단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Knoblach, 2005).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규범이 개인이 속한 집단 내외에서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점과 주류 이성애주의 규범과 구별되는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문화 집단의 복식 활용 방식을 살펴보는 데에 부분적 문화기술지의 관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집단 외부에서 요구하는 규범뿐 아니라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외모 표현과 관련한 규범에 대응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복식의 활용 방식을 밝힘으로써 성소수자 집단의 일상적 복식 활용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성소수자의 문화공간에 두 차례 방문, 지인을 동반한 모임에 참여하는 등 문화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관찰자이자 연구자로서 자료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분석에 집중하였으며, 심층 면접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질문지에는 일상 속 각 상황에서 복식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일상 세계는 반복적이고 당연히 여기는 일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상적 삶이 패터닝되면서 각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특징짓고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일상적 상황에서 행위는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므로 일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복식 행위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복식 행동의 의미를 고찰하기에 적합하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반복된 부호화를 통한 영역 및 분류 부호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Saldña, 2009/2012). 전사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며 의미 단위를 발견하고 범주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각 영역에 포함되는 용어들은 참여자들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용어들의 지시적 의미와 용어가 문화 내에서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범주의 용어를 포함하는 영역 내 분석 및 영역 간 분석을 통해 의미론적 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적 주제를 발견하였다. 분석 과정에 있어 대상자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복식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내적, 외적 요인을 조명하고자 했으며, 이를 정체성 수용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젠더 규범에 대응하는 성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일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각 상황 또는 장소에서 복식 활용의 방식의 차이를 발견하고 복식 스타일 표현 시 고려하는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2) 연구참여자의 모집 및 선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의 20-40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모집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의 범주로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젠더퀴어(genderqueer)를 포함하였으며 이를 영문 약자로는 LGBTQ 로 표기하였다. 국내에서 성소수자에 관련한 담론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므로, 이 시기의 사회 변화를 경험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연구자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목적적 표본추출을 선행하였으며, 한정되고 비가시적인 정체성을 가진 집단적 특성에 따라, 성소수자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주요한 수단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된(IRB No. 1810/003-002)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재하

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문화 내부적인 표본추출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지인을 소개받는 형식으로 눈덩이 표집 방법을 병행하였다.

모집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지정 성별에 순응하는 LGB참여자와 자신의 지정 성별에 거부감을 보이는 논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범주에 해당하는 총 25명이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7세로, 각 범주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는 레즈비언 4명, 게이 10명, 바이섹슈얼 2명,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9명이다. 법적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15명, 여성이 10명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힌 참여자들을 통칭하여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구분하였다. 이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별 정정을 위한 수술이나 법적 성별 전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젠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한국의 성소수자 범주가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방식이 젠더가 확장되고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젠더를 이해하는 데 보다 중요한 것은 젠더를 개인의 속성 중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복식 행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규범에 의해 수용되거나 규범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도록 하는 젠더 표현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II. 젠더와 복식 규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젠더

성이 자연적이고 고정적이며 젠더가 본질인 성

에 기반한다는 본질주의적 시각과 달리 구성적 젠더를 주장하는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성이 사실은 원본적이지 않으며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화한다고 본다. 성소수자의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젠더 정체성이 구축되고 해체되는 양상을 밝히고자 했다.

1) 푸코의 몸, 권력, 그리고 섹슈얼리티

최근의 퀴어 이론에 등장하는 논의들 중 푸코의 몸과 섹슈얼리티(sexuality)에 관한 탐구는 레즈비언/게이의 정체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푸코는 근본적인 개념이나 주체를 뒤로하고, 역사적 전개 속에서 지식과 담론, 대상의 영역이 구성되고 변환되는 방식을 밝히는 방법론으로서 계보학을 제시하며, 이러한 지층의 형성과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권력이라고 보았다(Kang, 2008).

권력은 담론의 변환 동력으로도 작용하지만 동시에 개별 주체에게도 미시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쳐 개인의 정체성 구성 과정에 작용한다. 푸코는 『Discipline and Punish』에서 파놉티시즘(panopticism)을 통해 권력이 개인에게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죄수들은 감시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관찰자의 원리에 의해 감시되며, 죄수들 개개인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몸에 특별한 방식의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 받는다. 이러한 규율은 개인을 훈련시키고 작용 결과를 행사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몸에 작용하는 권력은 무형의 존재로 개인은 권력이라는 내재된 체계 안에서 사회의 제도와 규율에 입각한 행동을 함으로써 몸 주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푸코에게 있어 몸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권력의 작용 지점이다(Kang, 2008).

『The History of Sexuality: 1. The Will to Knowledge』에서 푸코는 섹슈얼리티를 대상으로 인간의 몸이 지식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17세기 이

후 성에 관한 표현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암암리에 형성된 규범에 의해 통제되었다. 푸코는 이러한 성의 억압의 실재 여부와 더불어 성이 어떻게 개인의 일상과 권력의 매커니즘의 기저를 변동시키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푸코는 성이라는 개인적 욕망에 침투하여 일상의 쾌락을 통제하고, 나아가 새로운 담론을 양산하는 ‘권력의 다형적(多形的) 기술’(Foucault, 1976/2010)을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푸코 논증의 핵심적 특징은 섹슈얼리티가 인간 삶의 자연적 특징이나 사실이 아니라 구성된 범주라는 것이다. 이는 섹슈얼리티를 탐구하는 데에 있어 생물학적 기원보다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기원 하에서 다원적으로 형성되는 성 유형들 간의 형태를 포착하고 분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Choi & Kim, 2007; Spargo, 1999/2003). 섹슈얼리티에 관한 푸코의 탐구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지니는 섹슈얼리티가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특질로 설명할 수 없음을 밝히고, 더욱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퀴어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2)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적 젠더와 젠더 허물기

버틀러는 몸과 섹슈얼리티가 담론의 효과로서 구성된다는 푸코의 주장에 이어, 젠더 또한 권력과 구조의 효과로서 구성되는 개념으로, 성과 젠더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버틀러의 젠더 계보학은 당대의 사회 구조로 인해 구성된 틀 안에서의 정체성의 범주에 대한 비판의 논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Butler, 1990/2008). 젠더 정체성에 관한 버틀러의 핵심은 주체는 권력과 담론이 만들어낸 규제적 틀 안에서 일시적이고 가변적으로 구성되며, 정체성을 이루는 행위는 패러디적이고 복종적인 동시에 전복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패러디의 측면에서 버틀러가 주목한 것은 ‘모방’ 행위 자체로, 모방 행위의 대상인 원본 또한

원본이 아니라 원본이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이상적 자질임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이분법적 성의 개념과 그 위에 구성되는 젠더 개념은 젠더가 성을 모방하는 관계에 있음을 함축함을 드러내며 원본이라고 생각했던 것 또한 파생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젠더 또한 ‘이상적인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 젠더의 특질을 모방한 것이므로, ‘원래’ 여자다운 것도, ‘원래’ 남자다운 것도 없다(Cho, 2006). Kwon(2015)은 젠더가 임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젠더가 재구성, 재맥락화를 통해 부동성의 개념이 해체되며 내부와 외부의 개념이 흔들리는 유동성의 개념을 갖게 된다고 했다. 젠더는 이제 모방의 대상인 원본을 가정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적 성이나 섹슈얼리티도 젠더이다. 모든 것은 법과 권력과 담론의 이차적 구성물로서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며, 엄밀히 말하면 생물학적 성과 젠더, 섹슈얼리티는 구분되지 않는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Butler, 1990/2008).

버틀러는 권력과 담론이 구성한 체제 내에서 행위를 통해 임시적이고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주체를 주장한다. 주체는 체제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므로 행위는 규범에 복종하거나 저항하는 의미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규범의 반복과 저항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설적 복종을 통해 생산된 주체는 반복된 행위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므로, 복종은 이중적 의미화, 재의미화의 가능성을 말한다(Cho, 2001). 즉, 버틀러가 보기에 젠더는 행위이며, 주체의 행위가 자발적이나 온전한 주체성을 갖지 못하므로 탈 주체적인 반복 과정을 의미하는 ‘수행성(performativity)’의 개념을 사용하였다(Cho, 2001). ‘진정한’ 젠더 정체성은 불가능한 개념이며, 젠더는 수행하는 만큼만 실재하므로 행위 뒤에 행위자는 부재하고, 행위만이 행위자를 말해 줄 뿐이다(Cho, 2001; Cho, 2006). 여성적이라고 문화적으로 용인된 규제적 이상을 반복하는 사

람이 여성이다(Cho, 2006).

몸에 부여되는 의미는 외부에서 비롯되며 사람들이 몸을 지각하는 방식은 문화적·사회적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몸에 규범이 포함되는 것이며 몸과 성이 문화적 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타인의 지각은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주체적 행위를 통해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규범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젠더 행위는 즉흥적으로 발생하며 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구조에 동조하거나 저항하는, 혹은 새로운 인식 가능성의 지평을 제안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한다. 인식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은 곧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며, 규범에 의해서 인정받았고, 동시에 살만한 삶의 요건이 갖춰졌음을 은유한다.

젠더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의 욕망은 전복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행위, 섹슈얼리티는 규제의 장 안에 있는 즉흥적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누군가가 어떤 젠더 ‘인지’가 어떤 섹슈얼리티를 ‘가질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섹슈얼리티는 젠더를 포함하며, 규제 때문에 소멸되기도 하지만 규제 때문에 자극되고, 때로는 몇 번을 되풀이해서 생산되기 위해 규제를 필요로 한다(Butler, 2004/2015). 버틀러의 수행적 젠더와 인식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이 등장하는 가운데 규범의 전복적 가능성을 암시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논의로 확대되었다.

3) 젠더 정체성의 분화

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젠더에 관련한 정체성에 대하여 푸코에 이어 제프리 워스(Jeffrey Weeks)는 사회에 다양한 담론과 실천이 존재하며, 이러한 담론과 실천의 총체는 주체의 위치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주체성은 본질

적 자질이 아니라 자신 밖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따라서 정체성은 결국 다른 이들과 달리하는 동일시의 효과이다(Jagose, 1996/2012). 행위를 규범에 대응하는 실천의 측면으로 이해할 때 행위가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성과 젠더를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젠더 정체성은 삶 속에서 가변적으로 형성되며 그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과 별개로 스스로가 믿는 개인의 성적 자아상으로, 성장 과정에서 생리적·사회적 요인 모두가 기본적인 젠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주변 요인에 의해 수정되거나 확장되기도 한다. 쉽게 혼용되는 용어로서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이 있는데, 성 정체성 용어는 생물학적 성과 그에 기반한 성 역할 정체감의 획득과 성적 지향성의 문제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sexual orientation identity)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는 제한된 의미로 젠더 정체성과는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Yi, 2015).

젠더 정체성의 범주는 스스로 지각하는 젠더, 연애 및 성적 감정의 방향에 이름 붙이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먼저 젠더의 지각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정 성별(assigned sex)과 지각된 젠더가 일치하는 경우는 시스젠더(cisgender)이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정 성별과 반대되는 젠더를 가진 사람 또는 그러한 젠더 자체를 트랜스젠더로 불렀으나 현재는 폭넓은 의미에서 지정 성별과 젠더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트랜스젠더로 통칭한다. 국내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미는 1990년대 이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연예인으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MTF, Male to Female),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전환한(FTM, Female to Male) 사람의 개념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는 성별을 이미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로 구분하고, 트랜스젠더는 젠더가 지정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통칭하여 넓은 의미로 쓰이는 추세다.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 두 젠더 간의 전환 및 지정 성별과 젠더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이며, 남녀 젠더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칭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젠더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젠더가 없다고 느끼는 에이젠더(agerender),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느끼는 안드로진(androgyny), 지정 성별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서 이성성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트랜스페미닌(transfeminine), 트랜스마스쿨린(transmasculine)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범주에는 시스젠더와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보다 다양한 범주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젠더 이분법에 속하고 싶지 않으므로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소속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논바이너리, 또는 젠더퀴어로 정체화하기도 한다.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말 또한 역사적으로 정체성 범주를 넓히는 방식으로 변해 왔다.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남녀 동성애자를 칭하는데에서 양성애자와 성전환자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Joo, 2017; Kang, 2011; Shin, 2015; Yoon, 1997). 신체적 특징이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간성(intersex) 또한 성소수자에 포함되는 범주이다. 영문 약어로 표기하는 측면에서는 LGBT로, 다시 LGBTI로 변해왔다. 무성애자와 퀘스처닝(questioning) 혹은 퀴어의 약자를 포함하는 LGBTIAQ라는 언어가 쓰이기도 한다(Na & Jung, 2015). 초기에 성소수자를 지칭하던 ‘퀴어’라는 단어는 좋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일컫는 말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동성애 혐오적인 용어였다(Jagose, 1996/2012). 퀴어는 명사적 의미를 비롯하여 형용사나 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며, 국

어로는 ‘이반(異般)’으로도 번역되는데 동성애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지칭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로맨틱 끌림(romantic orientation)과 성적 끌림(sexual attraction)은 자신이 어떤 젠더에 자발적으로, 낭만적으로나 성적으로 끌리는지를 구분하는 범주를 의미한다(Mardell, 2016/2017). 이러한 구분은 성적 끌림이 반드시 해당 젠더 또는 성에 대한 낭만적 끌림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성적 끌림의 개념은 로맨틱 끌림을 포함한다. 두 범주는 각 용어의 어미를 달리하여 구분되어 로맨틱 끌림의 경우 ‘-romantic’, 성적 끌림의 경우 ‘-sexual’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동성애의 로맨틱/성적 끌림은 호모로맨틱(homoromantic), 호모섹슈얼(homosexual), 이성애의 로맨틱/성적 끌림은 헤테로로맨틱(heteroromantic), 헤테로섹슈얼(heterosexual), 양성 또는 서로 다른 2 가지 젠더에의 끌림은 바이로맨틱(biromantic), 바이섹슈얼, 어떤 젠더에도 끌리지 않는 에이로맨틱(aromantic), 에이섹슈얼(asexual), 젠더나 성별에 관계없이 경험하는 로맨틱/성적 끌림은 팬로맨틱(panromantic), 팬섹슈얼(pansexual)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남성 또는 여성, 특정 성별에게만 끌림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남성애자, 여성애자 등으로 불린다. 그 밖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끌림을 의미하거나, 끌림을 경험하지만 구체적 상황이나 상대와 연결되지 않는 끌림을 가진 사람은 오토로맨틱(autoromantic), 오토섹슈얼(autosexual), 깊은 감정적 유대를 느껴야만 로맨틱/성적 끌림을 경험하는 데미로맨틱(demiromantic), 데미섹슈얼(demisexual) 등 다양한 끌림의 방향을 정의하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다(Mardell, 2016/2017).

젠더와 끌림의 방향을 정의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개인이 스스로를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이름 붙여진다. 예를 들어, 지정 성별 남성이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남녀 또는 어떤 2 가지 젠더에게 로맨틱 끌림과 성적 끌림 모두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시스젠더 바이로맨틱 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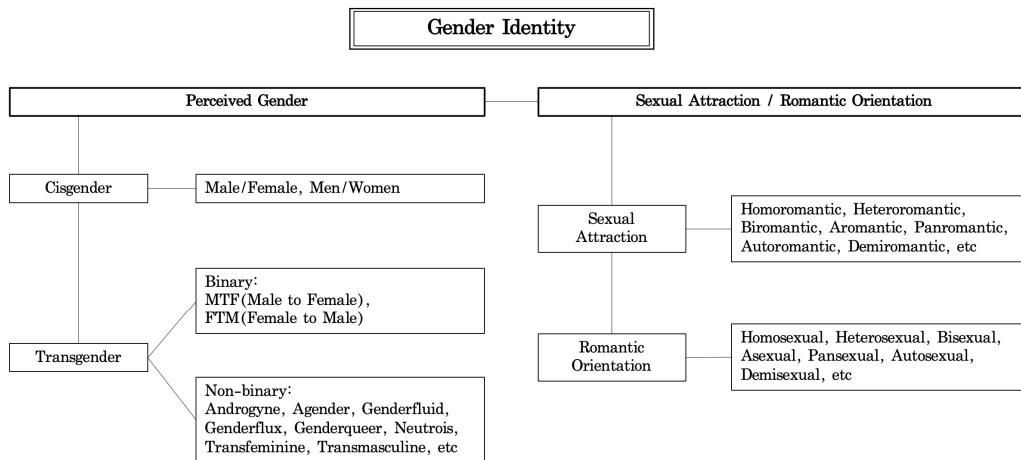


Figure 1. 젠더 정체성의 체계.

섹슈얼로 정체화할 수 있다. 자신의 젠더를 유동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에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젠더가 있거나 없는 두 가능성 사이에서 유동성을 경험한다면 젠더플럭스(genderflux) 등으로 정체화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젠더 정체성이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에 대한 감각을 기반으로 개인이 주체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섹슈얼리티와 끌림의 방향에 대한 지각이다. 정체화의 결과는 종결 지점 없이 생애 동안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이 젠더화된 행위를 반복함으로 가시화된다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화된 젠더의 범주가 증가하는 것은 보다 스스로를 세세하게 정체화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젠더 정체성의 인식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이와 같은 시도는 지배적인 규범에 대한 저항적 움직임이자 전복 가능성을 포함한다. 버틀러의 후기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젠더는 이제 복잡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양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명명을 통해 각 문화에 내재하는 규범에의 인식 가능성과 공존 가능성을 획득하려는 전복적인 행위이다. 단일하고 본질적인 정체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성적 지향과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중요한 논의로 부상했으며, 스스로를 범주화하는 명명 체계는 오늘날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의 구성방식을 드러내며 분화하고 있다. 앞선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다(Figure 1).

2. 젠더와 관련된 복식 규범

규범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따라서 의복 규범이란 한 사회집단에 의해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진 옷차림을 의미한다(Kang, 1996). 복식은 문화적 중요성을 띠고 있어서 몸이 나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규정하는 엄격한 규칙과 코드가 존재한다(Entwistle, 2000/2013; Hollander, 1993). 인간은 일생 동안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과정 중에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기는 불가능하다. 복식과 관련한 규범은 개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지되고 체화되며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복식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복식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찰은 꾸준히 이루어

져 왔다(Kaiser, 1995). 복식과 관련한 규범에는 신체 관리와 관련한 규범, 정숙성과 관련한 규범, 역할 관련 규범 등 다양한 규범이 존재하며, 본 절에서는 복식에 나타나는 젠더 규범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1) 복식에 나타나는 젠더 규범

엘리자베스 윌슨(Elizabeth Wilson)은 패션이 성별에 간혀 있으며 성별의 경계를 정의하고 재정의한다고 하였다(Entwistle, 2000/2013).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모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니섹스 스타일조차 성별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성 역할 고정관념은 많은 사회에서 비교적 공통성 있게 존재하고 있다(Entwistle, 2000/2013; Hwang & Park, 1997). 이는 상황과 경우에 따라 남녀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의복이 존재하며, 지각되는 성별 외모(gender appearance)는 비교적 정확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남녀의 성 이분법적 시각을 토대로 형성된 복식 규범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복식에 반영되는 성 역할 규범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성 복식은 16세기에 타이즈와 패딩 디테일을 활용해 호전적인 남성성을 강조했다. 17, 18세기 등장했던 일부 장식적인 남성 복식은 ‘여성적인’ 것을 의미했으며, 구혼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18세기 후반부터 어두운 단색의 직물이 사용되면서 장식은 절제되었고, 코트, 조끼, 바지, 셔츠, 크라바트(cravat)로 이루어진 근대적 양식이 등장했다. 이러한 직선적 실루엣과 실용성, 활동성을 강조한 남성 슈트 양식은 남성의 외양보다 본질적인 이성적 고정성에 주목하도록 했다(Hollander, 1993).

반면 여성의 복식은 고대부터 19세기까지 패션적인 것, 장식적인 것이었으며 여성복의 과시적이고 허영적이며 탐닉하는 이미지는 여성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나체는 본질적으로 수

치스러운 것이었는데 이 타락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18세기 후반에 코르셋을 제거하고 하이웨이스트의 직선적인 실루엣을 표현하는 복식이 등장했으나 오래가지 못했으며, 19세기에 다시 곡선 중심의 실루엣, 밝은 파스텔 색상, 리본, 레이스 장식이 증가했다. 이러한 여성복은 여성의 본질보다 외관에 주목하도록 하여 복종적인 여성을 강조했다(Hollander, 1993). 20세기에 등장한 블루머(bloomer) 바지는 여성의 신체를 덜 구속하는 복식 등장의 기점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이후 깃슨 걸(Gibson girl)은 자유롭고 적극적인 여성을 재현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룩은 현대 여성의 슈트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같은 시기에 플레퍼 룩, 스포츠 패션 등 복식에서의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가 빈번히 나타났으며 현대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양성적 의복을 촉진시켰다(Entwistle, 2000/2013). 1960년대 단순하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강조한 유니섹스 모드는 이제 복식을 통해 더 이상 성을 구별할 수 없고 복식이 유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Choi & Kim, 2007). 1970년대 초 글램 록(glam rock)밴드, 보이 조지(boy George)의 룩은 전위적인 섹슈얼리티, 동성애,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 모두를 암시했다. 이러한 젠더벤딩(gender-bending)은 생산이나 일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이전까지 여성성과 결합되었던 소비와 쾌락을 탐닉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뉴 맨(new man)의 등장으로 이어졌다(Entwistle, 2000/2013).

한편 트랜스베스티즘 혹은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은 혼용되며, 변태 성욕의 일종, 성별 무질서의 징후를 의미하는 한편 젠더 이분법적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한 반향, 또는 전통적 남성 복식에 대한 싫증의 표현으로 주류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크로스 드레싱은 전통적인 이분법의

관념에 도전하는 방식으로써 하나의 용어나 성이 아니라, 성별 축소나 소멸을 향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성소수자와 관련된 복식문화

성소수자의 복식은 18세기 이후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게이, 레즈비언의 복장에 대한 기록이 중요하다. Park(2015)의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의 복식 스타일을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서 오는 관습적인 외적 이미지에 도전하는 퀴어 코드를 보유한 스타일로써 사적으로 고찰 및 분석하였다. 그의 고찰에서도 드러나듯 게이들의 복식은 사회의 지배적인 남성성에 저항하는 방식에서부터 일반 남성들과 구별되지 않지만 게이 섹슈얼리티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한편 Cole(1999)의 연구는 세분된 게이 집단의 외적 표현을 드래그(drag) 그룹, 유미주의 그룹, 비가시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연구 결과 서양 문화에서 보고되는 게이 패션의 전형이 하위문화 의복 트렌드와 혼재하여 나타났다. Schofield and Schmidt(2005)는 이를 바탕으로 게이 4가지 단계의 정체성 표현 단계인 공유된 게이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 상황적 정체성, 개별 정체성 단계를 통해 집단 내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개별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보았다. 레즈비언 복식 스타일은 1900년대 초반의 기록부터 살펴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젠더화된 규범과 성 역할에의 저항적 의식을 바탕으로 나타났다. 남성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슈트, 짧은 머리 등을 착용해 규범화된 남성다움에 저항하는 의미를 지닌 부치(butch)와 1990년대 등장한 여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적인 팸(femme)으로 대조되는 형식은 현재까지도 유지 및 변형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복식은 젠더 정체성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로, 성소수자의 복식 및 젠더 표현에 있어 주류 이성애 규범과 다른 규범을 가진

다. 게이 스타일과 레즈비언 스타일 외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다른 유형의 성소수자의 복식 스타일의 경우 특정한 전형이 보고되지 않았다. 바이섹슈얼은 게이와 레즈비언 복식 스타일 사이에 섞여서 나타나며 특정하게 정형화된 이미지는 없다. 트랜스젠더의 복식 또한 자신들이 동일시하는 젠더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의복을 착용하지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성의 젠더를 과장되게 모방하는 드래그 스타일은 트랜스젠더의 것이라기보다 연극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된다.

젠더화된 복식사에서 성소수자들은 지배적인 젠더 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복식을 활용해 왔다. 또한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외적 표현방식의 구분이 함께 이루어져 이들 집단이 세분되어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외형을 다중적으로 표현하며, 퀴어임을 드러내고 싶은 경우에 이들의 내면적 정체성을 표현한다(Clarke & Turner, 2007). 즉, 이들은 스스로를 패서너블하다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패션 스타일을 통한 대안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Lewis, 1997). 게이 스타일은 옷으로 잘 꾸민, 취향 기반의 의례적인 소비나 투자를 통해 외적으로 드러났으나, 이러한 높은 외모 관리 관심은 이들의 선천적인 감각이기보다는 수행 능력의 향상 효과(stereotype lift effect)와 관련이 깊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Cotner, 2013).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에 보다 유의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을 정체성의 수행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젠더화된 복식의 규범은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에 의식적, 무의식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화 내에서 형성되는 규범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내의 소속감과 규범 체감의 정도에 따라 복식 활용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성소수자는 성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와 이성애 중심주의로 형성된 지

배적 규범에 비동조적인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지배 규범에 대해 이미 내재화된 태도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규범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복식 행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복식과 관련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는 데에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III. 성소수자의 복식 규범과 상황에 따른 복식 스타일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지닌 국내 성소수자 25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에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해 일상적 상황에서 복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면접 결과는 전사 작업을 거쳐 문서화하였으며 반복적인 부호화 과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일상적 복식 활용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성소수자의 일상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활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참여자들의 복식 활용이 자신의 지정 성별에 대한 거부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 양상을 일차적으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을 포함하는 시스젠더 집단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해보았다. 복식에서의 젠더 규범에 대응하는 태도가 이분화된 젠더 규범에 순응, 규범과 개성의 타협, 규범에 저항, 규범으로부터 이탈이라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각 대응 태도에 따라서도 복식 스타일의 표현 양상에 따라 개성 추구형, 신체 관리형, 관습적 젠더 모방형,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으로 나뉘었다. 본문에서는 편의를 위해 각 연구참여자를 번호로 표기하였다.

1. 젠더 정체성 유형별 규범과 복식 스타일

1) 시스젠더 집단

(1) 관습적 젠더 규범 대응과 복식 스타일

① 개성 추구형과 신체 관리형

다수의 게이와 레즈비언 참여자들에서 나타난 방식으로 이들은 복식에서의 관습적인 젠더 규범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복식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복식 스타일 표현 양상은 개성 추구형과 신체 관리형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레즈비언 참여자들(21, 24, 25)은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식을 통해 젠더를 표현하고 있었다. 레즈비언 참여자들의 개성 표현은 일관된 방향을 갖지 않았는데, 이는 곧 이들에게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패션의 주요한 기능임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점으로 패션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취향의 범위 안에서 직장 관련 상황이나 시험 기간, 데이트 등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복장을 조절하고 있었다.

게이 참여자들의 경우 개성 추구형과 신체 관리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2, 3, 5, 6, 7, 9, 12, 13, 14, 15). 이들은 패션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 운동을 하기도 하고, 보이고 싶은 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패션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은 참여자들은 스스로 다른 이성애자 남성의 패션에 비해 유니크하고 튀는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보고했다. 운동을 통해 몸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스타일링을 통해 신체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게이 참여자들은 자기 신체의 장단점에 대해 타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작고 마른 체형의 참여자들이 체형이 커 보일 수 있는 옷을 선호하거나 여름철에 민소매를 입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 외에도 키나 다리 모양 등 신체 부위에 대한 콤플렉스를 옷을 통해 보완

하고 있었다.

개성을 추구하는 한편 이러한 양상이 젠더화된 복식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13)는 평상시에는 다른 게이 참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복식을 활용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퀴어 퍼레이드와 같이 보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개방적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드래그 패션을 실천하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응답했다. 참여자는 대중적인 드래그 스타일을 모방하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자신만의 드래그를 찾고자 했으며 드래그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긍정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하며 해방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드래그 패션의 수행은 규범에 도전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자 젠더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순응하거나 이탈의 태도로부터 복식 스타일은 개성을 추구하거나 신체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서 요구하는 성별의 경계를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체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규범의 인식 가능성 안에서 개성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패션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이 패션을 활용할 때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이들 커뮤니티 내에서 형성되는 문화 내 복식 규범이었다.

② 관습적 젠더 모방형

한 바이섹슈얼 참여자(23)는 규범에 대해 순응하거나 개성과 타협하는 태도를 취하며 관습적 젠더의 이미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복식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파트너의 성별에 따른 외적 표현, 내적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하였는데, 예를 들어 “남자를 만날

때는, 내가 보통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를 하고 싶어한다”라며 평소 연출하는 섹시하고 퇴폐적인 복식 스타일 대신 자신이 남자라면 만나고 싶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수행하며, 내적으로도 그러한 여성의 태도로 남성을 대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여성을 만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만나고 싶은 남성상,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인 남성상을 외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며, 내적으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었다. 신체적 조건의 한계로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 남성상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현실과의 타협적인 방식으로 소년의 상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에게 이상적인 남성상이란 관습적으로 남성성이 길다고 여겨지는 아이템들인 셔츠, 시계, 슈트, 각진, 클래식한 것들로 이미지화되어 있었으며 이상적인 것을 전형적으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복식을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여성 파트너를 만날 때에 머리 길이가 짧은 것 또한 남성상을 표현하고, 여성과의 데이트 관계에서 레즈비언 관계성으로 보이기 위한 외적 표현의 일부였다.

본 경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상성에 대한 모방과 관계성이었다. 참여자는 삶 속에서 스스로 설정한 이상적인 성 상을 모방하며 파트너의 성별에 따라 외적 표현을 달리했다. 이를 통해 상호가 연인 관계에 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며, 동성을 만나는 경우에도 레즈비언으로 보이는 것이 낙인일지언정 참여자와 파트너가 연인 관계에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③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

바이섹슈얼 참여자(10)는 패션을 통해 너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것보다는 좀 중성적인 이미지로 보이고 싶다고 응답하며 관습화된 젠더 규범 때문에 어떤 외적 표현이나 언행이 특정한 젠더로 판단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었다. 머리를 길러 단

발 길이로 유지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젠더화된 외모의 요소로 헤어스타일과 체형을 꼽았다.

그와 더불어 20대 초반의 한 레즈비언 연구참여자(16)는 최근 여성에게 과도한 꾸밈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저항적 의식의 표현으로써 여성적인 복식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그 일환으로 헤어스타일도 짧게 바꾸었다고 응답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여성복이라고 여겨지는 치마나 블라우스를 강조하는 옷차림들 대신 후드, 셔츠, 바지 등의 유니섹스 제품을 선호했다. 참여자는 한편으로 이러한 복식 스타일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스스로가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라고도 언급했다.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는 양상은 최근의 한국 현대 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거나 그러한 구분을 지양하는 움직임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과 복식 스타일

게이와 레즈비언 집단은 국내에서 1990년대 이후 독자적 커뮤니티를 형성해 왔으며 이제는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 가장 주류에 해당하는 부류가 되었다. 게이 집단은 서울의 종로 일대와 이태원 지역에, 레즈비언의 경우 홍대와 이태원 지역에서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어 성소수자 인권 단체를 비롯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 트위터(Twitter),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남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바이섹슈얼 참여자들의 커뮤니티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 섞여 있기 때문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부상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 중심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이들 커뮤니티 내에서 외모 표

현과 관련한 규범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 내에서 외모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외적 취향, 성적 취향 표현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① 게이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과 복식 스타일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외모 관련 규범 중에서도 신체 관리와 관련된 규범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체형에 따른 선호가 있는 것으로, 마른 체형, 스탠더드 체형, 통통한 체형, 뚱뚱한 체형의 4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었다. 근육은 남자다운, 관능적인 신체 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마르고 가는’ 체형이 유행의 메인 부류에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근육질의 어떤, 남성적인 스타일’이 더 인기인 유행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최근의 주류에 부합하는 근육으로부터 오는 육체미를 강조한 신체 유형은 커뮤니티 내에서 ‘일턱’, 즉 비성소수자와 구분하기 어려운 ‘일반스러운’ 스타일의 의미를 가진 의미로 불렸으며, 이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후드 티, 체크무늬 또는 민무늬의 셔츠, 면바지, 운동화, 트레이닝 복 등이 있었다.

매스큘린(masculine)한 타입이라고 여겨지는 위 유형 외에도 트렌드에 관심이 많고 메이크업 활용에도 적극적인 페미닌한 게이 유형도 나타났다. 매스큘린과 페미닌 두 유형은 커뮤니티 내에서 대조적인 두 스타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외모를 관리하는 이성애자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보다 외적 표현을 통해서도 젠더 정체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였다.

파트너의 신체에 대한 선호, 근육질의 신체를 선호하는 트렌드는 참여자들의 복식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자신의 몸의 장단점을 드러내고 보완하는 방식과 더불어, 자신의 복식을 통해 커뮤니티 내의 복식 규범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 또한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러한 외적 표현은 곧 참여자의 상대에 대한 취향을 암시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지나

치게 규범화되어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불편감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게이 참여자들이 외모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곳은 바나 클럽과 같은 커뮤니티, 즉 물리의 집이었다. 게이는 데이트 상대를 찾기 위한 크루징(cruising) 상황 및 파트너와의 데이트 상황에서 패션을 비롯한 외모 표현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는 다른 게이들의 시선을 받거나 파트너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복식과 더불어 커뮤니티 공간 내에서는 ‘끼’를 부리는 등, 외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표출하기도 했다. 끼를 부리는 것은 여성스러운 표현이나 제스처, 또는 무의식중에 체화된 걸음걸이, 행동과 같은 요소를 칭하며 이것은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기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신체형과 외모 관리 측면에서의 규범이 커뮤니티 내에서 자연스럽고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규범화된 복식과 외모의 표현은 성적 취향의 암시, 자신의 매력성 표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의 개인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한정된 문화 내에서 이러한 규범들은 때로 주류에 속하지 못했다는 느낌과 함께 소외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과거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기호로 역할했던 특정 의복 아이템이나 액세서리는 더 이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며 자신 안에 형성된 다양한 스타일과 취향을 바탕으로 문화적 코드를 내면화함으로써 젠더 정체성이 반영된 복식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남성의 외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게이들의 젠더 정체성은 외적으로만 판단하기에 어려워졌으며, 집단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은 해외에서 유입된 게이 문화가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게 변화되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게이들의 복식 스타일에는 커뮤니티 내에서 돋보이고 싶은 욕구와 문화

밖 사회집단의 규범에 따르는 경향이 혼재한다. 게이들의 복식은 다양한 집단의 특성 간에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정체성은 복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보다 ‘삶의 전반적인 양식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내면화’된다.

②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과 복식 스타일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는 부치와 펌으로 나뉘는 스타일이 존재했다. 국내에 레즈비언 문화가 도입된 이래 ‘치마씨’, ‘바지씨’로 구분되는 부치와 펌의 양상은 점차 세분화되어 ‘머긴부, 긴머부, 단머부’, ‘단머펌, 긴머펌, 티부’ 등의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다. 각각 머리 긴 부치, 긴 머리 부치, 단발 머리 부치 등의 줄임말을 뜻하는 이것은 단순히 외적 스타일에 대한 구분뿐 아니라 머리 길이나 행동, 일상적인 역할 관계나 성적 역할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머리 긴 부치와 긴 머리 부치는 구분되었는데, 전자의 경우 머리만 긴 부치 스타일로 ‘하나도 안 꾸미는데 머리만 긴’ 부치 스타일을 뜻했으며 후자는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을 지니고 ‘머리 길고 셔츠에 바지’를 입는 등의 스타일에 대한 묘사를 포함했다. 티나는 부치를 뜻하는 티부는 삭발 또는 매우 짧은 머리를 가진 부치를 뜻했다. 일부 참여자는 이러한 명칭의 세분이 사회적 시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외적으로 남성적인 요소를 보유하는 부치 스타일이 레즈비언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여겨지면서 사회적으로 낙인된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방식이 스타일적으로 세분된 것으로 보는 시선이다.

세분된 스타일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원하는 파트너의 조건을 손쉽게 드러낼 수 있는 용어였다. 이는 곧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특정한 젠더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이러

한 역할 분담을 행동과 언어, 태도 등의 측면에서 체감하며, 동시에 이것들이 커뮤니티 내 기호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부치는 파트너인 램과의 관계에서 관습화된 남성의 젠더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답했으며 램의 경우 대개 그 반대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모든 레즈비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학습된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관습화된 젠더 역할이 커뮤니티 내에서 체화되고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외적 표현에 기대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성향이나 레즈비언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보다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레즈비언의 스타일이 세분되고, 이성애자 여성과 구별되지 않는 레즈비언도 많아지면서, 레즈비언의 정체성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개인성의 강조와 파트너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제 레즈비언의 복식과 외적 표현은 고정관념화된 여성성에 저항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실천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사회에서 이성애 규범성과 혼재하고 있다. 레즈비언의 복식은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측면으로 파악되며 과거 남성 규범에 저항적인 의미를 담은 부치 스타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 어냈던 숏컷 헤어, 슈트 등은 주류 패션 문화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패션 양식으로 흡수되었다. 다만 커뮤니티 내에서의 관계 형성과 인식 가능성 획득을 위한 부치와 램으로서의 젠더 수행은 관습화된 주류 이성애주의 규범을 반영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자신의 젠더와 관계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 측면에서 외적 표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에서는 관습화된 젠더 규범으로부터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정 성별과 젠더가 일치 없음에 따라 복식 활용이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젠더 이분법적 복식의 카테고리를 따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부터 발견되었다. 이들 커뮤니티 내에는 뚜렷한 외적 규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집단을 이루는 젠더의 범주 자체가 매우 다양하여 공동의 약속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트랜스, 젠더 퀴어, 논바이너리, 에이젠더 등 다양한 젠더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식은 관습적 젠더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1) 관습적 젠더 규범 대응과 복식 스타일

① 개성 추구형

개성 추구형에 속하는 참여자들(1, 8, 22)은 자신의 개성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현실에 타협하는 방식으로 복식 스타일을 표현했다. 자신이 보유한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시도가 좌절되었으므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정 성별에 적합한 복식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젠더를 절충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식 표현에 보다 소극적인 것은 사회적 시선 때문인 것으로 보고했는데, ‘내가 이걸 사서도 당당히 입고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하거나, ‘도저히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적 요인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욕구는 특정한 상황에서 규범에 비순응, 이탈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참여자들에게 퀴어 퍼레이드는 타인의 시선에 관계없이 자신의 젠더, 개성을 완전히 표출할 수 있으며 젠더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그러한 자유로운 표현이 허락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② 관습적 젠더 모방형

MTF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참여자(4)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이 보유한 여성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복식 스타일, 사이즈, 화장법 등에 대한 수차례의 시도를 통해 자신의 현재 신체에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여성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어깨와 허리, 다리 등의 남성 신체 특징이 뚜렷한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퍼프, 플레어, 화려한 패턴이나 액세서리와 같이 다소 과장된 디테일의 패션 아이템을 주로 착용하게 된다는 고민을 갖고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여성의 복장을 하는 것이 이상인 본 참여자의 경우 관습화된 젠더 이미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패션을 표현하며, 사회적으로 인식 가능한 젠더 표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복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20대 초반 참여자들의 경우에서도 평상시에는 중립적인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지만 명절, 결혼식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시선이 부여되는 사회적 상황에는 단정한 학생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을 취한다고 응답해 사회의 규범에 포함되기 위한 방법으로 관습적 젠더를 모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

본 유형에 속한 참여자들(11, 16, 17, 19, 20)은 이분화된 젠더 체계에 비순응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복식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외모가 양성 중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지되지 않기를 추구했다. 이들은 머리 길이, 유니섹스 의류 제품,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목소리, 말투나 제스처, 웃음소리 등의 외적 표현을 통해 남성이나 여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젠더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공통적으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반대 성으로, 또는 모호한 젠더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효

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뽑았다.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구분한 다른 유형과 달리 스스로의 젠더를 젠더퀴어, 에이젠더, 범성애자, 논바이너리로 정체화하여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 계기 또한 각자 달랐다. 젠더퀴어, 범성애로 정체화한 참여자들의 경우 현대 페미니즘에서 파생된 탈코르셋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에서 이러한 경향을 더 뚜렷하게 비쳤으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외적 표현의 수정을 통한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검열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방식으로 페미니즘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다고 말했다.

에이젠더와 논바이너리 참여자의 경우 지정 성별이 자신의 젠더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두 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 특징이 자신의 젠더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젠더 디스포리아(dysphoria)를 경험하고 있었다. 젠더 디스포리아란 개인이 타고난 신체나 법적 성별, 호칭, 상대방의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위화감, 부적절함, 불쾌감을 일컫는 말이다. 주변에서 자신을 성별을 기반으로 구분하는 ‘딸’, ‘언니’ 등의 언어로 지칭할 때에는 사회적 디스포리아를, 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신체를 볼 땐 신체적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유니섹스 복식이나 가슴을 압박하는 등의 복식을 통해서 이러한 디스포리아를 일정 부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도 젠더가 모호하게 인식되고자 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의 논바이너리 정체성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젠더 표현을 수행함으로써 가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가 규정하고 유지하려는 젠더 이분법에 대한 저항적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성소수자의

인권, 젠더 이분법의 해체를 지지하는 페미니즘 의식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가시화함으로써 자신의 젠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주변의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며, 규범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과 복식 스타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커뮤니티는 온라인 사이트와 트위터, 그리고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즉 젠더 이분법의 해체와 다양한 젠더를 존중할 것을 지향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형성된 이러한 모임은 실제 생활로 옮겨 오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소속감이나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커뮤니티가 단일한 형태를 갖지 않음에 따라, 이들의 복식에 있어서도 일관된 양식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게이나 레즈비언처럼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독립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보다도 트랜스젠더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서 내집단을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범주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집단 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외적 표현에 관한 규범은 부재하였다. 이들 참여자는 모임 내에서 규범과 관계없이 자신의 젠더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복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모임은 이들이 자신의 젠더 표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복식을 통해서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상호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보였다.

퀴어 퍼레이드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8, 22)에게 자신이 가진 개성이나 섹슈얼리티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내적 소속감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서 평상시 표출하지 못

했던 젠더 표현의 욕구가 패션에 반영되거나 자신이 속한 젠더를 상징하는 액세서리, 색상 활용을 통해 동일한 젠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했다. 이 경우 젠더화된 복식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양상이나 개성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복식 스타일을 표현했다. 복식은 이들에게 정체성을 암시하는 한편 재미있고 다양하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젠더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2. 성소수자 복식 스타일의 표현 특성

성소수자의 복식은 언뜻 보면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주류 이성애 규범과는 구별되는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을 정체성을 인지하고 긍정하는 과정에서 규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이러한 태도가 복식을 통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복식의 모드가 이분화된 젠더 규범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어, 복식을 활용하는 데 시스템이나, 트랜스젠더이냐의 문제는 스타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체화 과정에서 복식이 달라지기도 하며, 특정한 공간이나 상황에서는 별도의 옷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또는 반대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방향으로 복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게이와 레즈비언 집단에서는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대개 순응하며, 개성 추구형과 신체 관리형이 두드러졌다. 특히 게이 경우 개성 추구하고 신체 관리가 일상생활에서 혼재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개성을 규범에 타협하거나 비순응하는 태도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 복식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1, 8, 22)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추구(11, 16, 17, 18, 19, 20)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관습적인 젠더 이미지를 모방하는 경우(4, 23), 통상 여성, 남성의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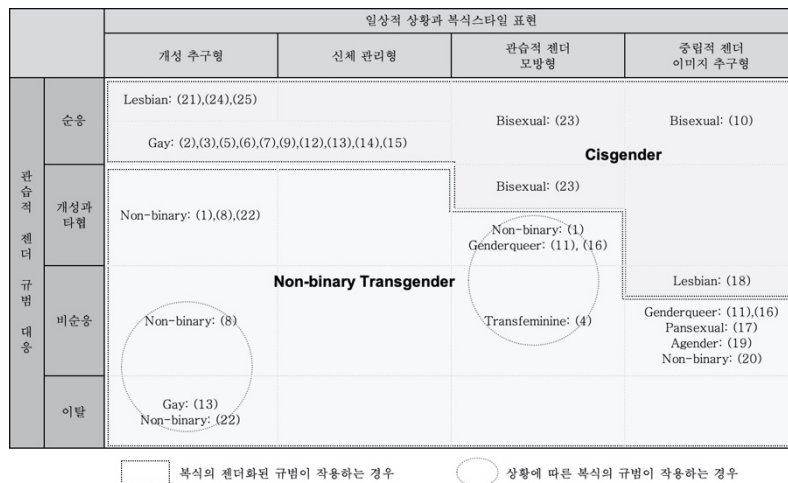


Figure 2. 관습적 젠더 규범 대응에 따른 복식 스타일 표현.

로 여겨지는 패션 아이템, 행동, 제스처 등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외적 표현에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의 유교적인 배경에서 오는 상황적인 복식 규범이 작용하는 경우에 평소와 달리 관습적 젠더를 모방(1, 11, 16)하는 방식은 복식에서의 규범성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사회로부터 인식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젠더화된 복식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규범에 이탈 또는 비순응하는 방식으로서 개성 추구적인 복식 스타일이 나타났다(8, 13, 22). 이는 퀴어 퍼레이드, 집단 내 소모임 및 행사와 같은 한정된 상황에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성소수자는 이성애 규범으로부터 분리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이어가고, 파트너를 찾기 위한 공간으로서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었다.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활발히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미 성소수자 범주 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각각 독자적인 외모 규범과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집단 내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고한다. MTF, FTM의 좁은 의미로 여겨졌던 트랜스젠더의 범주는 점차 넓어져 성 이분법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너리와 이분법을 지양하고 젠더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논바이너리로 구분되고 있었다. 트랜스젠더 집단에는 단일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젠더에 대한 상호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거나 집단 내 소속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복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성소수자의 규범에 대한 태도 및 복식 스타일 표현 양상을 정리하면은 <Figure 2>와 같다.

IV. 결론

본 연구는 비가시적이며 주류 규범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는 한국의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상황과 그에 따른 복식 스타일 활용 방식을 분석한 연구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분화되는 젠더 정체성이

패션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는가에 주목하였으며, 사회에 내재하는 젠더화된 복식 규범과 성소수자 문화 내에서 규범화된 외모 표현에 대한 참여자들의 대응 방식과 그에 따른 복식 스타일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푸코와 버틀러의 논의에서 드러나듯 주체는 젠더를 수행함으로 규범 안팎에서 의미를 획득하며 정체성을 구성한다. 규범은 개인의 주체화 과정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행위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은연중에 반영한다. 젠더가 행위이듯이, 복식을 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 복식은 규범으로부터 받아들여짐으로써 구조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기도 하고 규범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규범의 변동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 복식, 언어, 행동과 같이 외면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것인 동시에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즉 규범화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복식이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은 수행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 결과, 성소수자가 분화된 명명 체계를 확장해나가고 스스로를 가변적으로 정체화하는 것은 젠더 정체성의 변화 가능성과 다양성, 불확정성을 드러내며 젠더가 확장적이고 유동적임을 확인했다. 젠더는 개인의 젠더와 관련한 수행적인 행위의 결과이며, 따라서 개인을 특정한 젠더로 재단하거나 이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복식의 측면에서 성소수자는 젠더화된 복식 규범 안에서 순응, 개성과 타협, 비순응, 이탈이라는 연속선 안에서 유동적으로 태도를 형성하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비교적 지속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복식을 활용한다. 복식 활용 방식은 크게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집단으로 나뉘어지나, 이들은 모두 공통

적으로 이성애 규범 및 일반적인 복식 규범, 또는 문화 내의 인식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복식을 수행하여 집단 내 또는 사회와 소통한다. 즉,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의 젠더와 성향을 표현한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복식은 일상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젠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복식을 통한 젠더 수행은 젠더화된 복식의 규범 가운데 틈을 만들고 확장하며 새로운 규범의 등장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패션의 흐름은 젠더리스 트렌드를 넘어 다양해진 젠더와 내면의 섹슈얼리티를 자발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확대될 것이며, 이를 표현하기 위한 폭넓은 범주의 체형, 취향, 그리고 젠더 감수성을 포함할 수 있는 패션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패션은 개인 간의 관계와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된다. 개인 간에 복식을 통해 젠더를 표현하는 행위는 사적이고 특정한 관계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도 패션은 규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역할하여 인식 가능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식 스타일의 표현은 규범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해지고 세분된 젠더의 표현 수단으로서 패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국내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규범에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발현되는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패션 산업에 있어 소비자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젠더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패션 상품 기획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해진 젠더 정체성과 발달하는 젠더 감수성은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패션이 개인의

젠더 정체성을 드러내는 뚜렷한 지표이기보다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패션 제품의 기획과 개발은 개인의 젠더 정체성에 따른 자발적인 외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패션의 가능성은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20-40대에 속한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집단 간, 세대 간에 보여지는 세분된 특징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람들을 아닐지라도, 연구에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연구에 임하였다는 점에서 ‘벽장’에 속한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폭넓은 연구대상자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로서 보다 세분된 각 집단의 복식 활용에 접근함으로써 패션의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utler, J. (2008).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Cho, H. J., Trans.). Paju: Munhakdongne.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Butler, J. (2015). *Undoing gender* (Cho, H. J., Trans.). Seoul: Moonji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Cho, H. J. (2006). 퀴어의 눈으로 바라본 젠더와 타자 이야기,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주디스 버틀러 읽기』 [Story of gender and the other from queer eyes, 『Ridicule of gender and philosophy of melancholia-reading Judith Butler』]. *The Journal of Asian Women*, 45(2), 317-324.
- Cho, H. S. (2001). Judith Butler's gender identity theory: Focused on parody, performativity, subjection, and melancholia. *The Korean Association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Culture*, 9(1), 179-207.
- Choi, K. H., & Kim, M. J. (2007). Socio-semiotic analysis of plural sexu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2), 190-201.
- Clarke, V., & Turner, K. (2007). Clothes maketh the queer? Dress, appearance and the construction of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ies. *Feminism and Psychology*, 17(2), 267-276. doi:10.1177/0959353507076561
- Cole, S. (1999). Invisible men: gay men's dress in Britain, 1950-70. In Pick, Haye, A., & Wilson, E. (Eds.), *Defining dress: Dress as object, meaning and identity* (pp. 143-154).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otner, C. (2013). Queer eye for the straight guy sexual orientation and stereotype lift effects on performance in the fashion domain. *Journal of Homosexuality*, 60(9), 1336-1348. doi:10.1080/00918369.2013.806183
- Creswell, J. W. (2005)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Entwistle, J. (2013). *Fashioned body* (Choi, K. H., Trans.). Seoul: Hansung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Foucault, M. (2010). *L'Histoire de la sexualité: La volonté de savoir* (Lee, K. H., Trans.). Paju: Nanam. (Original work published 1976)
- Hollander, A. (1993). *Seeing through cloth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wang, H. Y., & Park, C. B. (1997). Perceptions of clothing norms, clothing behavior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logical variables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1(-), 165-188.
- Jagose, A. (2012). *Queer theory: An introduction* (Park, L. E. S., Trans.). Seoul: Center for Women's and Cultural Theory.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Joo, J. H. (2017). Hidden lives of Korean LGBT adolescents: A qualitative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1), 175-215. doi:10.24159/joec.2017.23.1.175
- Kaiser, S. (199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Kim, S. S., & Kim, J. K., Trans.). Seoul: Kyungchu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 Kang, B. C. (2011).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tigma on the life satisfaction of sexual minor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2), 381-417. doi:10.16999/kasws.2011.42.2.381
- Kang, H. W. (1996). *의상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eoul: Gyomoonsa.
- Kang, M. R. (2008).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body-subject' in Merleau-Ponty with 'body-power' in Foucaul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Knoblauch, H. (2005). Focused ethnography.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Berlin, 6(3). doi:10.17169/fqs-6.3.20
- Kwon, H. J. (2015). Gender identity revealed in the movie Laurence Anyways: Focusing on the expression of Laurence's fashion imag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6), 191-202.
- Lewis, R. (1997). Looking good: The lesbian gaze and fashion imagery. *Feminist Review*, 55(1), 92-109. doi:10.1057/fr.1997.6

- Mardell, A. (2017). *The ABCs of LGBT+* (Team Iruda., Trans.). Seoul: Baumealame. (Original work published 2016)
- Na, Y. J., & Jung, H. H. (2015). 성소수자 인구, 커뮤니티를 그리는 작업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The problems with mapping population and community of sexual minorities: Focusing on the research of social desire of Korean LGBTI community].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32(-), 92-108.
- Park, Y. J. (2015). *The queer codes of star images in popular culture: Focused on the styles of Madonna and Lady Gag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Saldaña, J. (2012).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Park, J. W., & Oh, Y. L., Trans.). Seoul: Shinju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9)
- Schofield, K., & Schmidt, R. Ä. (2005). Fashion and clothing: the construction and communication of gay ident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3(4), 310-323. doi:10.1108/09590550510593239
- Shin, K. H. (2015). Understanding sexual minority issues in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in the American context. *Teacher Education Research*, 54(3), 496-507. doi:10.15812/ter.54.3.201509.496
- Spargo, T. (2003). *Foucault and queer theory* (Kim, B. Y., Trans.). Seoul: Ej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Yi, H. (2015). *The effect of minority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sexual minorities (LGB)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Yoon, G. H. (1997). *동성애의 심리학* [Psychology of homosexuality]. Seoul: Hakjisa.

Gender Minorities' Expression of Gender Identity through Clothing

Kim, Kyu Yeon • Ha, Jisoo⁺

Doctoral cours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Research Institution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hile fashion is a major medium of expressing individuality and identity, it also has been influenced by the socio-cultural norm. This might be the reason that the discussions about fashion and gender have been made steadily. In this study, we purposed to pay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clothing of gender minorities in everyday situations, from the viewpoint of focused ethnography. Hypothesizing that gendered clothing norms and cultural norms will affect the use of clothing in everyday situations, we focused on identifying the aspects of how the norm works in gender minorities' everyday lives and revealing its specificity of Korea's social-cultural influence. According to the study, gender minorities express their clothing based on the attitude toward gendered clothing norms, which has been developed over time. The attitude of gender minorities toward gender-based clothing norms was divided into compliance, individuality and compromise, non-compliance and deviation. At the same time the costume expression pattern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ity-oriented, physical-management, customary gender-imitating, and neutral gender-image-seeking types depending on the response attitude. Relatively in common, the candidates clothed based on the social awareness reflect their collective identity through clothing and express individual's gender at the same time. By using clothes to perform gender in everyday situations, candidates' gender performativity through clothing creates cracks among gendered clothing norm and extend it, implying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new norm. This result implicates that the study has expanded the potential of fashion to express sexuality and gender, by inspecting costume styles of various Korean gender minoritie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when planning and developing fashion products that can express various gender and sexuality by approaching the concerns experienced when using clothes in daily life. But there still to be identified more detailed properties of each gender minority category and the segmental characteristics. Also, the study couldn't include many participants from the 'closet', so the results can't be generalized for all the gender minorities.

Key words : gender identity, gender minorities, clothing norm, costume style